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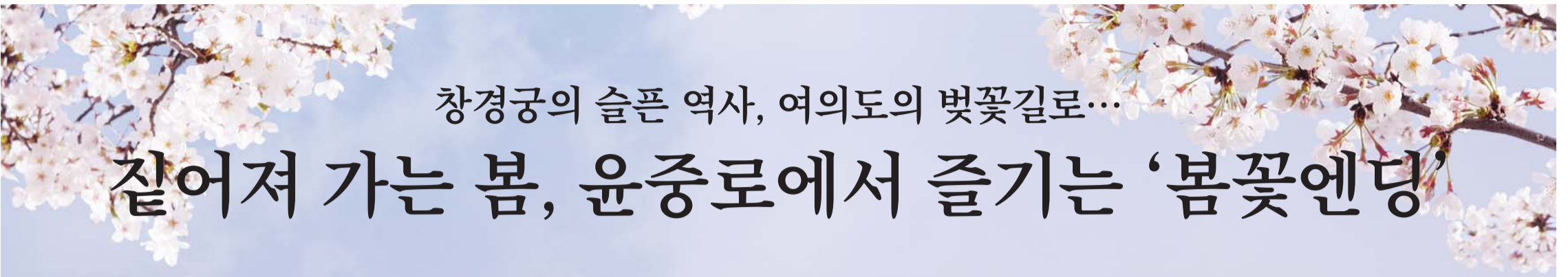


[마켓]
리서치센터장 증시전망
불황 이미 증시 반영...
IT·車 유망 2200선 안착
08



Life

[라이프]
K뷰티·K팝 만났다
올리브영
新 한류시너지 기대
L4



창경궁의 슬픈 역사, 여의도의 벚꽃길로...

짙어져 가는 봄, 윤중로에서 즐기는 '봄꽃엔딩'

되살아나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제강점기 창경궁 격하시켜
벚나무 심고 유원지 만들어

1983년 창경궁 복원사업 후
윤중로·서울대공원에 옮겨져

일제 잔재에 곱지않은 시선도
벚꽃축제, 봄꽃축제로 명칭 바뀌

매년 4월 여의도 윤중로에는 수백만명의 상춘객이 몰려든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즐기기 위해서다. 이 벚나무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벚꽃이 만개한 창경원에는 20만명의 인파가 몰려 쓰레기는 4t 트럭 열다섯 대분, 빈 병만도 15만 여개... 흥인문 앞에는 가짜 관람권이 판을 쳤고, 미아만 200여명 이...” 1972년 4월23일. 동양방송 TV뉴스의 한 장면이다. 옛 창경원(昌慶苑)의 풍속도다. 원래는 창경궁(昌慶宮)이다. 창경원은 차옥의 역사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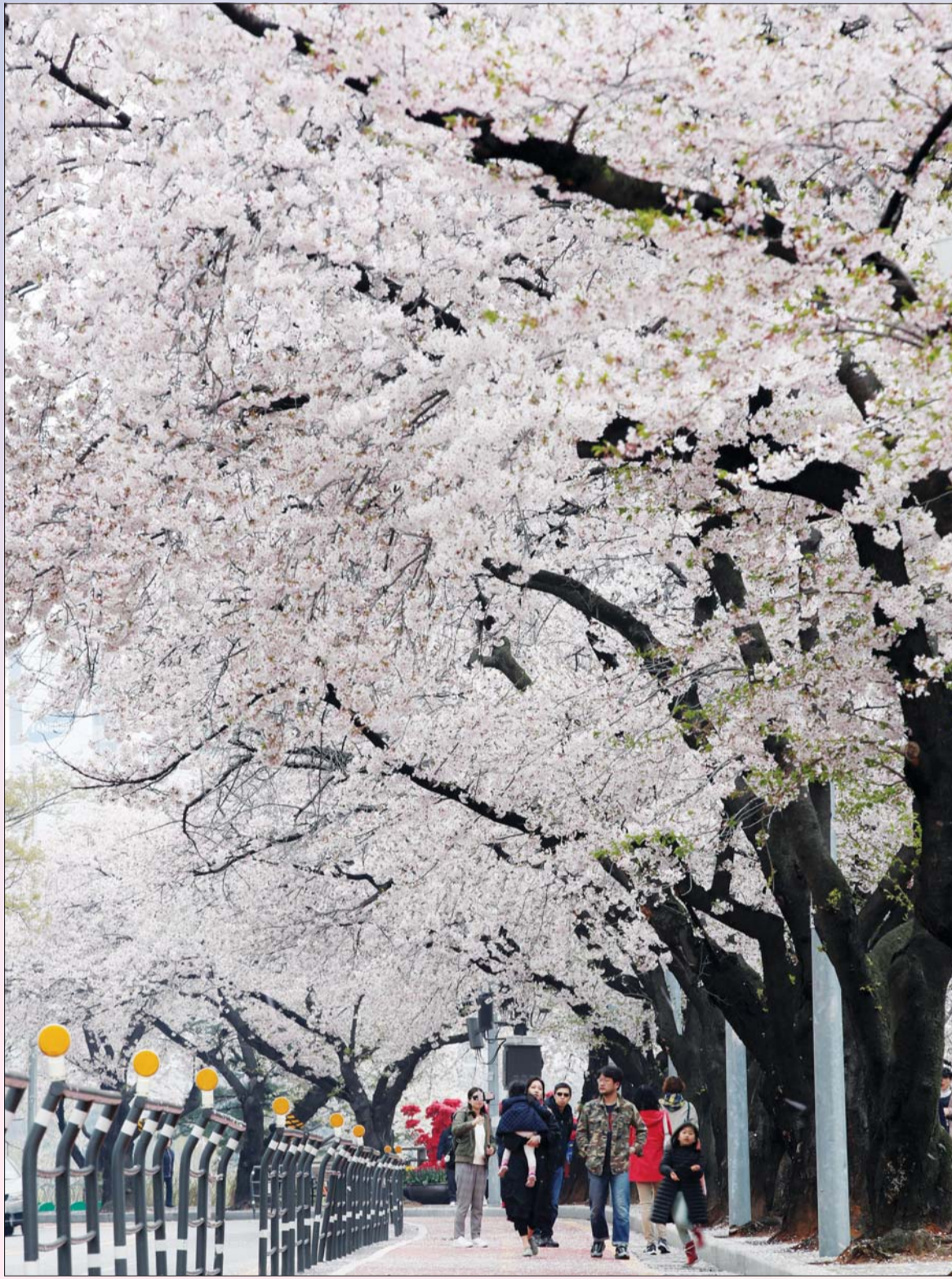
1909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창경궁 전각을 헐고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다. 이후 일본은 궁궐이었던 창경궁을 유원지인 창경원으로 격하시켜버렸다. 1983년 창경궁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창경원에 있던 왕벚나무들은 윤중로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 진짜 꽃축제는 지금부터!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도 꽃향기가 강물처럼 흘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풍선처럼 떠다녔다. 사람들은 꽃속으로 들어갔고, 꽃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벚꽃을 스쳐온 바람은 노래가 된다. “벚꽃 그늘에 앉으면 흐린 삶도 환하게 피어난다.” 이기철 시인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이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다. 흐드러진 벚꽃을 가슴에 담으려면 세상 일은 잠시 비워놓아야 한다.

지난 15일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막바지 벚꽃을 즐기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여의도 봄꽃길을 찾은 시민 임소현(29) 씨는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오지 않는다”며 “이맘때 오면 사람이 좀 줄어서 진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라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봄비가 내린 여의도 윤중로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벚꽃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15일 여의도 윤중로 봄꽃길에는 노점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김현정 기자

여의서로 1.7km 구간에서는 평균 수령 60년 안팎의 탐스러운 왕벚나무 1866그루가 시민들을 반겼다. 벚꽃뿐만이 아니라 톨립, 개나리, 철쭉 등形形色색 고운 빛깔의 꽃들이 향기로운 봄 내음을 풍겼다. 벚꽃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아빠의 어깨에 올라탄 꼬마들과 솜사탕을 양손에 쥔 어린이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도봉구 쌍문동에서 온 이영숙(53) 씨는 “올해 처음으로 윤중로에 벚꽃 구경을 와 본다. TV에서 볼 때마다 사람들로 바글거려 ‘대체 저기에 뭐 볼 게 있다고 가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면서 “오늘 와 보니 사람들이 왜 벚꽃을 보러 여기까지 오는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등포구는 올해 여의도 봄꽃

축제가 지난해(509만명) 보다 23만명 많은 53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전했다.

◆ 일제 잔재 청산해야...

여의도 벚꽃축제가 일제 잔재라 곱지 않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이 벚나무들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며 “사람들이 맨날 ‘친일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제 잔재

는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건지 궁금하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 2017년 홍문표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벚꽃축제’ 명칭을 ‘봄꽃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벚꽃축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창경궁에 심은 벚꽃을 1924년부터 국민들에게 강제로 밤(야경)에 구경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민족의 해방에 대한 관심을 벚꽃으로 돌리기 위한 문화통치 수단으로 시작됐다”며 “대표적인 벚꽃축제였던 여의도 벚꽃축제는 국회와 영등포구청의 노력으로 지난 2007년부터 그 명칭이 봄꽃축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중로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중제(輪中堤)는 일본어 ‘와주테이’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윤중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쌓아 올린 지역이라는 뜻이다. 윤중로는 여의도를 둘러싼 제방을 부르기 위해 일본말 윤중제에서 ‘윤중’을 따다 만든 말이다.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1986년 ‘윤중로’를 ‘여의도 서로’, ‘여의도 동로’, ‘국회 뒷길’ 등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지만 여전히 윤중로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민주당 의원들은 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벚꽃놀이를 개탄하며 4·19기념일인 4월 19일 국회에서 무궁화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의서로에 만난 대학원생 김태훈(29) 씨는 “여자친구와 같이 왔는데 노점들 때문에 길이 너무 좁다”며 “축제가 끝나면 노점 단속도 같이 끝나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윤중로 봄꽃길은 ‘노점상반, 관람객 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노점이 많았다. 화관을 파는 보따리상에서부터 우동과 컵라면을 파는 포장마차까지 다양한 노점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김 씨는 “사람들이 노점에서 산 음식을 먹고 아무 데나 버린다”며 “벤치마다 쓰레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벚꽃길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지만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사람들이 앉기를 꺼리는 곳도 있었다.

대학생 박민영(23) 씨는 “저분들도 다 한철 장사인데 그냥 좀 같이 먹고 살면 안 되냐”며 “구정에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